

시즌3 - 3호 | 시편 51 ~ 75편

PEACE CHURCH

HAPPY MEAL **Kit**

THEOLOGISCHE UNIVERSITEIT

해피밀은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복있는 일상을 위한 매일 <경건밀키트>입니다.

해피밀 시즌3 - 3호를 발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합니다.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소중한 도움으로 이번 해피밀 3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사방이 막힌 듯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시편의 저자들도 이런 감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답답함, 억울함, 불안, 두려움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의 끝에 이르면, 그들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저자들의 상황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을 만나 더욱 굳건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해피밀 3호를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구원과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평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24년 8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reading 'Paul Jung'.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쓰인 가장 탁월한 저항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은 들과 봄을 빼앗긴 자들의 애환과 언젠가 찾아올 광복을 향한 염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빼앗은 자의 빼앗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빼앗은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모든 것을 강탈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빼앗긴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왜 뺏고 빼앗긴 자가 된 걸까요? 바로 ‘죄’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윗을 유혹했습니다. 죄에 넘어진 다윗은 성범죄자이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벌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어두운 다윗의 마음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은혜에 힘입은 다윗은 회개하였고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이 가진 모든 선한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유혹과 대가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 그분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 빼앗기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선조들이 그토록 되찾고자 했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죄와 싸우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는 죄의 유혹은 무엇인가요?

Q.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유혹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나요?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 네 혀가 심한 악을 꺾어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셀라)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셀라)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헤세드를 의지하는 하루**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직 젊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입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한 다윗 일행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도움을 청하려 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아히멜렉은 음식(진설병)과 무기(골리앗의 칼)를 주는 등 선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밀고자 도액을 통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만이 간신히 도망쳐서 다윗에게 모든 일을 고합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을 거둬와 동시에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도액을 저주합니다. 특히 그의 혀를 비난합니다. 그의 밀고로 이 재앙이 초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 분노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한다기에는 조금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원수를 향하여 “직접”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시는 다른 이에게 복수를 맡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왜 자신의 원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1,8절)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충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 의하여 악인을 향한 복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야말로 모든 원한을 갚기에 가장 완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를 영원히 의지하겠노라 고백합니다**(8절). 우리의 시대에도 포악한 자가 많습니다. 간사한 혀가 쉬지 않고 떠들어 댁니다.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의 손을 거둡시다. 그리고 나의 손보다 더 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선대함에도 불구하고 간사한 혀로 갇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Q.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 떠오르는 답을 적어봅시다.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려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홀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오늘 시편은 14편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를까요? 먼저는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타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그 자리에는 자기 자신이 없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만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인과 같은 종교인들**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괜찮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때때로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동행할 때 모든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와 본질상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를 떠올려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본문은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5절)**. 물론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최후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지식과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이룹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나를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백성은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충동에 이끌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 그분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셀라)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구원의 이름, 예수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모인 자 중에서 자신이 그토록 호의를 베풀었던 브루투스를 발견하고는 내뱉은 최후의 한 마디입니다. 물론 이는 위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줄리어스 시저>에 등장하는 대사 중 하나입니다. 고로 역사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신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무척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파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조차, 자기 지파를 위한 일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 다. 대표적으로 ‘그일라’라는 도시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 역시 다윗에게 선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중 ‘십’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여러 번 밀고한 것입니다. 이때 배신당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다 지파, 너희마저!”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배신감에 절여 있지 않습니다. 심한 배신감에 통증을 느끼는 감각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시편을 통해 본 것처럼 다윗은 감정 표현이 무척 풍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이 배신을 못 느낀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보다 더 큰 무언가에 그의 마음이 사로잡혔다고 보는 편이 옳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주님의 신실함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그는 믿음에 합당한 상을 얻었습니다. 카이사르나 다윗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은 사라지게 됩니다. 원망과 눈물이 가득해질 겁니다. 하지만 배신의 아픔을 딛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두에게 배신당하였음에도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으며, 나를 위해 모든 아픔을 감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여러분에게도 극 중 카이사르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나요?

Q.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0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2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 하나님이며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동완 목사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천로역정>은 존 번연의 대표작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크리스천이 복음을 접한 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멸망 앞에서는 많은 재산도, 좋은 직업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정을 감당하기에 크리스천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짐 때문에 그의 여정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을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된 십자가 앞에서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짐의 정체는 바로 '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척 은혜롭기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때는 회심한 순간이어야 하는데,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지나고도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비판이 무척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자유로워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멍에, 가벼운 멍에를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멍에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라 죄의 짐을 맨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직도 죄의 집에서 해방되지 못했다고 오해하며 삽니다. 혹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은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 22절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22절)**고 말하는 구절을 계속 읽어 보십시오. 이때 짐은 죄가 아니라 자기 죄나 타인의 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따라서 더는 이 짐들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작은 짐도 전부 그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어주신 것은 오직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멍에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짐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Q. 내가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순종해봅시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온 가족 <시편 51편> 묵상하기

가정에버 미니홈피

1. 시편 51편을 필사해봅시다. (청소년, 청년용)

1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2. 시편 51편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가정의 대표자)

대표자가 '월요일 해피인사이트'를 읽거나 혹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 '토요일 미니홈피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3. 핸드폰 배경화면을 변경하고 한 주 동안 묵상해봅시다. (온가족)



시편 51편 배경화면 다운로드 (QR 코드 스캔)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6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언제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이후의 후손들은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그가 이루었던 업적과 왕의 면모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삶이 언제나 멋있고, 대단하기만 했을까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을 때까지도 그의 인생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을 만만"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앞으로 남겨진 그의 인생도 기대될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곧 내리막길로 치달게 됩니다. 사울과 같은 민족으로부터 쫓겼습니다. 블레셋에서조차도 그가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결과는 매우 초라했고, 그의 의지함과 그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지함을 유지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그에게 인생을 바칠 수 있을까요? 시편 56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의지"입니다.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향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찰자되시는 주님께서 눈물병 안에 담긴 나의 눈물을 모두 계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나아져서, 조금 더 평안해져서가 아닙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Q.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기대가 확신이 될 때**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건강한 것,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기는 것 등. 기대하는 것들이 크든, 작든 이루어지면 기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향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갈한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로 내몰렸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넘어가게 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놀랍게 진행됩니다. 그가 숨어있던 골은 사울에게 들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까지도 자를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마주한다면 보통 자신을 찬양하거나, 자신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을 놓아주며 오늘과 같은 찬양을 합니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기대가 확신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의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릴 쾌감, 기쁨, 평안을 소망하며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이 있나요?

Q. 그 길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나 2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 6 하나님이어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7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8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10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어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 불의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백성들과 아버지 다윗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삼하 15장 1-6절).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까봐 이 모든 것들을 낱알이 아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의를 모른 체할 수 없었습니다. 불의를 하나님께 아뢰고, 불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술한 어려움과 해결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모든 문제들을 아뢰고, 해결될 것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10-11절은 우리에게 다소 의아함을 품게 합니다.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며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벌어진 일을 바라보며 악인의 피에 자신의 발을 씻습니다. 이것은 악인을 향한 보복성 심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감정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심리나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으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감정,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하나님 의로우심을 소망하고, 의로우심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의를 만방에 보이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내가 바라는 일은 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Q.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의 감정과 경험 등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1 나의 하나님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 주소서 ... 14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15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주님의 음성만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익숙하여 오해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득세하지 못하고 실세하였을 때 우리는 잘못된 관점으로 선을 선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악이 득세하였을 때 우리는 악은 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혼합되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고 늘 오해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증오심으로 인해 오히려 죽음의 사면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일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이 갑자기 벌을 받는 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편에서 구분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고, 못 되고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대처법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렸습니다. 피난처, 요새이신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고 그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 듣고,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나의 삶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Q. 세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신 적이 있나요?

1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대 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대 (셀라) 5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대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조아론 목사 **현재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승리**

실패는 매우 뼈아픈 일입니다. 더욱이 매일 승전보를 기록하던 다윗에게 실패는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녕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심이 여기까지입니까?'

하지만 그는 곧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현재의 실패보다 미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한 일시적 후퇴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실패는 뼈아픈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전부 신뢰했기 때문에 잡사의 슬픔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승리의 일들을 위해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에돔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며 선하게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일도 주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의 도움을 참 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만을 참 구원으로 여기고 그곳을 향해 온전한 신뢰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성도는 현재와 미래 모두 주님께 맡기어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성실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나요? 모든 찬양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주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실패로 인하여 낙담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경험이 있나요?

Q. 결국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한 적이 있나요?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 57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 1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 5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 7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 11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예 유의하소서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5 주 하나님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편 61편은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제사장의 선언(1-4)과 왕의 고백(5)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6-7), 공동선언(8)으로 이루어진 예배 때 사용되었던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면, 교독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교회에서는 매주 주어진 교독문을 읽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인 예배의 상황에서 함께 교독하는 교독문은 팬스레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주기도 하고,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1편에 선언되는 교독문에서, 시편 기자는 특별히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상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할 때에" 여호와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땅끝'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암담한 상황, 절망의 끝에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있고, '높은 바위'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즉, 우리의 심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고백이 시편 61편의 내용입니다.

3-4절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며, 견고한 망대입니다. 피난처는 지금 당장 피해야 하는 곳을 뜻하고, 망대는 다가올 불안과 두려움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불안함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다가올 불안에 예비하십니다. 4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분은 장막 속에서 함께하십니다. 이 장막은 만남의 장소로서 깊은 사귄이 있는 아늑한 자리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품듯이, 따뜻하게 품으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시편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Q. 나의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봅시다.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편 기자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의 태도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4절 말씀에 나타나 보이는 험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가 무고한 행인을 위협하고 때로는 피해를 주듯이, 인생에는 악인들의 권세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일제히'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군단이 일제히 자신들의 작전과 전략에 따라 일어나고, 신속하고 기민하게 협동함으로 전투를 치루어내듯, 무고한 자들을 향한 악인들의 공격은 매우 전략적이고 치밀합니다. 사실, 그 악인 속에 있는 '죄'라는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어서, 그들은 '죄'로 하나되고 혼연일체를 이루며 의인들의 삶을 공격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입은 아침하는 입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내뿜는 이율배반적이고, 가식적이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자를 속이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후 11:14)고 사도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데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잠하지 못하고 분주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기 십상입니다. 때론 잠잠한 자리,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에,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반석, 구원,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으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2절).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내 인생에 펼쳐지는 악인들의 공격은 어떤 것이 있나요?

Q.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어봅시다.

1 하나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유한한 내 삶의 무한함**

인생의 유한성은 늘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자원이 한이 없다고 하면 누가 굶을 것이며, 우리의 통장이 넉넉하다면 왠지 더 여유롭고 온유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과 같이,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이라는 유한한 땅에서, 물을 찾거나, 양식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주로 인해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가 만족하게 된 비결을 보고 있자면 놀랍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주의 성소로 갔다고 말하고 있고, 3절 말씀에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6절 말씀에는 침상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원이 가득한 이 땅에서 자원이 아닌 주를 찾음으로 만족을 누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충격과 또 도전을 가져다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요 6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먹고 마실 때(연합하여 교제할 때) 영혼의 채움 뿐만 아니라, 육체의 채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배고픈 이유는 너무나 탐욕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안락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매료된 인생관, 삶의 태도, 비전이 세워지게 되며, 그분으로 인한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Q.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일기를 작성해봅시다.

1 하나님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2 주는 악을 피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3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4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6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 뜻과 마음이 깊도다 7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 이ért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10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완 목사 **험악한 일이 다가왔을 때**

인생에 가장 험악한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서 원수들의 험악하고, 잔인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있습니다. 1절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머리글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긴장되고 긴박한 순간이 다가올 때, 부담감에 짓눌릴 일이 찾아올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의 머리글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 시편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한 이야기가 목상됩니다.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하만은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올무를 놓고, 아침의 혀를 내두르며, 동료들과 작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때 모르드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1-2절 말씀처럼 '들으십시오! 하나님!' 옷을 찢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 일하심에 있어서,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한 것이라고는 옷을 찢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7-8절 말씀과 같이 하만은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지게 되고, 자신의 혀로 선포한 말로 말미암아 상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선포된 하나님을 일과 그분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9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한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대며, 그제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신 역전의 하나님! 들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 시편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Q. 환란의 때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8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9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11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2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피를 띠었나이다 13 초장은 양 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이동원 목사 De Colores

'De Colores(데콜로레스, 오! 놀라운 채색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스페인어로 된 노래인데, 그 만들어진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가톨릭에는 '꾸르실료'라는 영성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한 수도사가 이 꾸르실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고장나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무지개가 피어났는데, 그때 은혜를 듬뿍 받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 만물이 보자, 그 아름다움에 감격하게 되어 '오! 놀라운 채색들'이라고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데콜로레스'라는 가사말을 품은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랫말이 얼마나 디테일 한지요. 농사를 짓는 전 과정을 디테일하게 서술하며, 그 순간 순간마다 부어지는 자연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땅에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으며, 땅을 예비하시고,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풍요는 넘쳐나는 기름과 같이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돌보신 산들은 마치 기쁨으로 머리띠를 한 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에게 이러한 농경 사회의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고, 매일 본 풍경일 것입니다. 그가 특별하게 어디 휴가나 관광을 떠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인해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듬뿍 취하여 'De Colores!!!' 노래할 수 있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 나의 삶 주변에 보이는 익숙한 것은 무엇이 있나요?

Q. 그 익숙한 것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10가지의 감사제목을 적어봅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61-65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1. 아동(11~13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우리 가족 성경 읽기 : 시편 61-65편까지

온 가족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성경읽기를 진행해보세요. 오늘은 시편 61편~65편까지입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기를 진행하셔도 되고, 목소리 좋은 사람이 대표해서 읽어도 좋아요!

2) 우리 가족 시편 오락관!

아래 QR 코드를 통해 '데폴로레스'라는 스페인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래의 가사에 빈칸을 넣어보세요.



이 쁘르 에소로스 그란데스 아모레스데 무초 꼴로레스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매일에 감사하라!

사람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은 쓰면 온 세상이 빨강게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해요.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되죠. 오늘 시편 65편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65편을 함께 읽는다.)

시편 65편의 기자는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아마 도시가 없고, 농경 사회가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당연한 곳이었어요. 그는 당연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OO이는 지금 OO이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일상의 5감사 나눔)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SNS가 만들어지고 난 뒤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학자들은 '비교'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SNS의 인플루언서들의 삶이라는 안경을 끼고 내 삶을 보니까, 뭔가 못나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해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OO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길 기도해요.

5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업위하시도다 6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7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8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백성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랑할 만한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인생이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패배의 현실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홍해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리가 걸어가 '강'을 건넜다는 뜻은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어의 성격으로 보아 에스라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 어디에나 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자랑할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을 다른 이들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구원받은 역사를 전해봅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살아갑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나요?

Q.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봅시다.

1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2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3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5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해피인사이트+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축복의 통로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추수의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을이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추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날씨와 여러 조건이 잘 맞으면 우리는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무이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론의 축복 또한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나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Q. 축복의 통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복음을 전해 봅시다.

11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12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13 너희가 양 우리에게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14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흡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 19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20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21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2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승리의 노래

각 시편은 분류(찬양, 탄식, 참회, 지혜 등)가 있는데, 이 시편은 한 편 속에 다양한 형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류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중 대적을 물리친 승리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나누어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진영을 정리하고 행진할 때 발언한 말들을 반복함으로 시작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고, 고대 근동 전투 진영과 비슷하게 진영을 정비하며 광야를 행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밀랍이 불 앞에서 빨리 녹듯이, 악한 대적을 비슷하게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대적이 파멸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인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은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이긴 승리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축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시온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신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Q.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매 순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읽기

2024년 9월 26일 (목)

시편 69편 1-7절

1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5 하나님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6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7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둘러싸는 어려움을 한탄합니다. 그는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대적의 손에서 극한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이들이 마땅히 처분받아야 할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대적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당신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지금 얼굴이 수치로 덮여 있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심각한 소외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며, 심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지만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의의 고난, 의의 박해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장으로부터 의의 박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갑시다.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내가 겪었던 의의 고난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Q. 극심한 박해가 생긴다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1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김기원 전도사 서둘러 건져주소서!

70편의 시편은 고통받는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청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간청으로 끝이 납니다.

이 탄원의 시를 보면 “하나님여”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자의 삶에 모든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우선적인 신뢰가 녹아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 “저를 건지시고”, “저를 도와주시기를”입니다. 이 말들의 주동사는 “속히”에 강조점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자의 형편이 다급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또한 대적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상황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성도 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까?

Q.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67편> 먹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아동부(유년) 미니홈피는 '가정예배'입니다. 부모님과 가정예배로 함께하며 교제의 기쁨을 누리봅시다!

예배 후 순서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나누기"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봅시다.

1. 아동(8~10세) 자녀와 함께 말씀먹기

1)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예배순서 : 사도신경(다 같이) - 찬송(찬송가 566장 예수께로 가면) - 말씀읽기(시편 67편 1-3절)

설교문 읽기(아빠 또는 엄마) - 감사기도(자녀) - 주기도문(다 같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ex) 나: 학원에서 친구를 만나 교회에 가자고 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 다른 나라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후원했어요.

2)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적어봅시다.

아빠:

엄마:

형제,자매:

나: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집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자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추수'입니다. 그저 좋은 날, 좋은 땅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며, 좋은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와 언약하셔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했던 그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가정과 직장 학교와 학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갑시다.

17 하나님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 하나님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19 하나님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21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일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에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의 도와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잠언 22:6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딤후 3:17).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난 속에서 살리시고, 다시 끌어 올리시며, 더욱더 창대하게(21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움입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시는 주님의 자녀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22-24절).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지금까지 지내오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Q.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5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6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7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8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9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10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



하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기준 되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판단력을 구했습니다.(1절) 솔로몬은 모든 일을 나의 기준과 판단력에 따라서 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길 소망하였기에 그는 주의 판단력을 구했습니다.

당시 왕은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었고 모든 것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소망했습니다. 때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옳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할 때 그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옳은 적이 있으십니까?

Q.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간을 뛰어 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 살핌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1절).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만 다니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보다 악인은 훨씬 잘 살아갑니다. 더 형통합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얻는 이득이 참 많습니다. 정직한 의인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따르는 고난과 고통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도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속에서 고민하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지켜냅니다. 잠언 4:23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악인을 향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고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오늘도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Q.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3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16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17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19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침묵 가운데 일어나는 통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선포합니다. 첫째는 왕이신 하나님입니다(12절). 침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고 이어짐을 선포합니다. 예로부터(12절), 즉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둘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13-15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결국 철저히, 그 흔적을 찾지 못할 정도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홍해와 가나안을 건너게 하셨으며,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구원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어떠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16-23절).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25)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의심치 않으십니까?

Q. 침묵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선포합니다.

1 하나님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2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3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4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6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8 여호와와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9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10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해피인사이드+ Happyinsight+

전보아스 목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 저절로 나오는 찬양뿐만이 아니라, 암울한 고난 가운데 있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앗수르의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야곱의 하나님(9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상황 때문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됩니다(4~6절).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세상의 권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7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인이시며, 이 땅에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에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12).

해피인플루언서 Happy influencer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결단과 적용을 해봅시다.

Q.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까?

Q.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속에 있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 다 같이 <시편75편> 그리기 가정예배 미니홈피

미취학(3~7세) 자녀와 함께 말씀을 색칠하는 하루

시편 75편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COME

평안교회
소개영상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Tel 0507-1365-8119

E-mail peacechurch@gmail.com

Adress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로218번길 110 수원평안교회 **Homepage** www.peacechurch.kr